| 현불 논단 |

象罔은 어디있는가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곤륜산서 구슬을 잃어버린 황제
뛰어난 離珠 등 찾게 하나 실패
멍청한 象罔 시키니 구슬 찾아와
세속가치 멀어진 人, 진리 이르러

신구 권력 갈등으로 세상 시끄러
대책으로 리주, 끽후들만 내세워
국민들 마음속 망상을 찾아보길

〈장자(莊子)〉 '천지(天地)' 편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황제가 곤륜산에 올랐다가 귀한 구슬을 잃어버렸다. 아는 것이 많은 지(知)로 하여금 찾게 했으나 찾지 못했다. 눈이 밝은 리주(離珠)를 시켜도 찾지 못했고 말솜씨 좋은 끽후(喫詬)를 보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멍청한 상망(象罔)을 시켰더니 상망이 귀한 구슬을 찾았다.

여기에 나오는 귀한 구슬(玄珠)은 도(道)를 비유한 말이다. 참된 진리는 세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라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세속적 가치에서 멀어진 사람이 진리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멍청한 상망' 은 '망상(罔象)' 으로도 불리는데 실제로 멍청한 게 아니라 유용하지 않은 듯 보이는 무용의 지혜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금강경〉 해설에도 곧잘 인용된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라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다면 여래는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의 실재 모습이 본래 없기 때문에 여래는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이다." -제19 법계통화분(법계를 다 교화함)

〈금강경오가해〉 속 야부도천의 '송(頌)' 이라는 양식에는 "망상(罔象)은 다만 무심(無心)으로 인해서 얻었으며 리누(离婁, 리주와 같은 인물)는 유심(有心)했기에 친한 이를 잃었도다"고 돼 있다. 〈장자〉 '천지' 편의 복잡한 캐릭터들을 정리하여 무심과 유심으로 대비시킨 것이다. 이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상(相)을 여읨' 과 '여의지 않음' 의 논법을 따른 것이다.

복을 짓되 복의 성품이 공(空)함을 아는 게 중요하고, 성품이 공(空)함을 꿰뚫어 안다고 하더라도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이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실천만 하고 알지 못해도 안 된다는 뜻이니, 이게 바로 함허 득통 선사가 경책한 "대도(大道)와 더불어 서로 계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리누' 는 독수리처럼 눈 밝은 사람으로 정평이 높은 사람이니 잃어버린 구슬을 찾을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어디 리누만 실패하는가. '지' 와 '끽후' 역시 마찬가지다. 아는 것 많은 사람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요란하기만 할 뿐 문제 해결의 적임자는 아니다. 어리숙한 망상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한다.

상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정보에만 빠져드는 확증편향주의자, 내편 네편 갈라서 차별하는 분리주의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문제투성이의 세상사가 언제라도 한 번 평온한 적이 있었던가. 탐진치 삼독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절대평화의 세계(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요원하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구 정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잦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을 했는데 알아서(知)들 눈치껏 하지(行) 못한다.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한다. 대책을 낸다는 것이 지와 리주만 선발하고 끽후들만 설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망상(罔象)은 어디 있는가. 말없이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신(神)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라는 지혜의 신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중도(中道)의 신이 국민들 마음속에 함께 살고 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농경의 여신, 자청비

새벽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따라 시다림을 다녀오니, 절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차담이 시작되자, 누군가 '구시래' 하고 작은 떡 조각을 등 너머로 던지자 몇이 따라 합니다. 그 유래와 의미를 물으니, 모르지만 옛 어른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제주의 목축 농경시대에 옥황상제로부터 오곡 씨를 지상에 가져온 농경신 자청비를 기리는 것입니다. 자청비는 제주에 전승되는 서사무가 '세경본풀이' 의 주인공입니다. 세경본풀이는 큰 굿에서 연행되는 무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농경기원신화' 로 그 내력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동관음절 부처님께 공을 들여 자식을 점지받았는데, 스스로 청해 태어났다고 해서 '자청비' 라고 했다. 같은 날 하녀도 아이를 낳았는데 '정수남' 이라 했다.

자청비는 자라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빨래하러 연못에 갔다가 우연히 옥황상제의 아들 문도령을 보게 되었다. 첫눈에 반한 자청비와 문도령은 함께 글공부하며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문도령은 다시 돌아오겠다며 복숭아씨를 남기고 하늘로 떠났다. 자청비는 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다가 문도령을 찾아 나섰는데, 함께 떠난 정수남이 겁탈하려고 하여 죽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죽인 이유를 말했지만, 오히려 나무라기만 했다. 어쩔 수 없이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서 생명꽃을 꺾어 와 죽은 정수남을 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청비의 재주가 무섭다며 다시 내쫓았다.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비구니가 되어 떠돌다가 청태산 마고할미의 수양딸이 되었다. 할미의 도움으로 문도령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청비의 장난으로 오해를 한 문도령은 하늘로 돌아가 버렸다. 자청비가 직접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하늘 문곡성을 찾아 나섰다. 자청비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났고, 옥황상제의 시험을 통과하여 결혼 승낙도 받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난리가 나서 반란군이 문도령을 죽였다.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서 멸망꽃과 생명꽃을 얻어 와서 반란군을 무찌르고, 문도령도 살려냈다. 큰 공을 세운 자청비에게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영토를 주겠다고 했으나, 자청비는 이를 거절하며 "하늘의 오곡 종자 씨앗을 인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씨앗을 받아 내려와 보니 하나가 부족하여 다시 올라가 얻어왔는데 메밀 씨앗이다. 그래서 한 달 늦게 메밀 씨앗을 뿌렸는데도 수확은 다른 작물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문도령은 지상으로 내려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어 농사를 보살폈고,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말과 소 같은 동물을 돌보게 되었다.

자청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난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천꽃밭에 핀 '환생' , '멸망' , '생명' 의 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천꽃밭은 살아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는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의 화현으로 관음 · 세지보살께서 사바세계로 오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청비는 생명의 씨앗을 갖고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화현하여 고난의 삶으로 오는 보살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삶 끝에 죽음을 맞고 죽음 너머로 새 생명이 피어나는 삶의 실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인재불사에 불교 미래 달렸다

동국대가 이른바 '등록금 걱정없는 동국대' 만들기에 나섰다. 재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꿈을 키우는걸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사찰이 지역인재를 지원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 학업성적 외에 품성과 지도력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 선발하는 '동국건학장학' , 동문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내리사랑장학' 등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를 진정한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님들의 높은 법력도 필요하지만 불법(佛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한 정치가, 기업가, 교육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른바 불자인재들이 우리 사회를 선도할 때 진정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낼 것이냐에 달렸다.

동국대에서 전폭적인 장학제도로 인재불사에 나서는 것을 계기로 불교 각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불사가 확산되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동문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으면 한다.

여기에 불교계에서 종합교육이 이뤄지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성장기 가치관 확립과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교 설립 및 운영, 다양한 교육기회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선어록〉에서는 "사람을 보고 집을 보는 것이지 집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격언이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사찰 전각 불사가 아무리 많이 진행되어도 정작 그 안을 채울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사찰불사보다 인재불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잊혀진 불교활동가 조명에 기대

근대화 과정에서 잊혀져 역사의 지층 속에 묻혀버렸던 불교 인물 선양 사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도로 추진된다. 종단협은 독립,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총 12명의 불교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근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불교인물이 주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불자들 조차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외에 근대 불교 활동가를 잘 알지 못했다. 특히 근대 스님들 중 문손이 남아있는 경우 선양사업이 있었지만, 없는 스님들이나 재가자의 경우 업적을 드러낼 기회조차 없었다. 격변기 속에 사회와 불교발전에 노력한 이들에 대한 선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젊은 이들에게 이러한 불교활동가를 알릴 필요성이 높았다.

종단협은 12월까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드뉴스,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 종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받은 각 종단들이 홍보에 나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 불교 활동가의 활동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불교인의 업적을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인물 소개책자도 제작할 방침이다.

사실 이번에 알려지는 12명 뿐만이 아니라 수행과 전법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힘썼던 여러 근대 선지식과 활동가들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조명은 한국불교를 일군 이들의 원력에 보답하고 불교중흥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때에 종단협이 근대 불교인물 조명에 나서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여러 근대 불자들의 삶과 사상, 업적을 기리고 잇는 다양한 선양사업으로 알차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